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9일 목요일 음 6월 7일 (14물)

기상정보

구름 조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 가축, 식중독, 농업, 산업, 수산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 관리와 농·수·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생활·안전 기상정보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매우 높음, 경고

주간예보

내일 구름 조금 25/32°C, 모레 구름 조금 25/33°C

월드뉴스

시진핑 초상화에 먹물 여성 구류중

시 주석 '개인숭배' 지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상화에 먹물을 뿌린 뒤 행방불명됐던 중국 여성이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AFP통신과 홍콩 매체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는 동아오층(董瑤瓊)이라는 29세 중국 여성이 시 주석 초상화에 먹물을 뿌려 훼손한 일로 중국 당국에 연행된 뒤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후난(湖南)성 주저우(株洲)시 출신의 동아오층은 지난 4일 오전 상하이 푸둥(浦東) 루자주이(陸家嘴)에 위치한 고층건물인 하이항다사(海航大廈) 앞에서 시 주석 얼굴이 그려진 '중국몽' 선전표지판에 먹물을 끼얹는 장면을 트위터로 중계했다. CHR 측은 동아오층이 사건 당일 중국 공안당국에 연행됐고 트위터 계정도 얼마 지



시진핑 초상화에 먹물 투척하는 장면.

나지 않아 말소됐다고 전했다. 트위터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영상에는 "문밖에 제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이 와 있다"는 동아오층의 발언에 이어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이 사건은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시 주석 개인에 대한 지나친 선전전도로 '개인숭배' 지적이 나오고 있던 중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사건 후 개인숭배를 경계하며 시 주석 관련 동향 보도를 줄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목요일론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장

며칠 전 총리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첫 회의 후 7개월만이다. 이번 회의의 화두는 단연 지역관광이었다. 그 이유는 주52시간 근무로 여행수요 확대는 예상되지만 해외여행 증가만큼 국내 지역으로의 확산이 더디다는 문제와 더불어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에서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관광 활성화는 서울, 제주, 부산 등 일부 편향된 특정 지역 방문객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

일상의 가치를 지키는 관광

성,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거점화, 섬·해안 관광자원 개발, 농촌·산림·생태관광 활성화 등 국제관광 거점 마련과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관광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은 크게 달라졌음을 느낀다. 예전 양적성장 위주의 인프라와 관광객 유치 전략이 중심을 차지했다면, 이번 정부는 질적성장도 지역주도도를 핵심키워드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지역관광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관광은 우리 지역에서 회자되는 지역관광과는 사뭇 다른 맥락이며, 대한민국 전체가 관광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왔던 제주는 이제 또 다른 길을 걸어야 하며, 그동안 치열하게 달려왔던 경험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방식이 필요할 때다.

지역관광에 있어 중요한 배경으로 최근 뜨겁게 논의되는 관광수용력 초과현상(오버투어리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적정관광객에 대한 판단은 무척 난해한 일이다. 자연환경, 생활 및 관광인프라, 지역주민의 정서 등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물리적 수용력의 기준이 정해졌다 해도 지역민들은 기준 이하에서도 오버투어리즘을 느낄 수 있으며, 기준 이상을 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도시와 섬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정수용력에 대한 기준을 떠나 지역민이 행복한 관광으로의 전환이 우선이다. 바로 지역민이 관광사업의 주체가 되고 관광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는 지역관광은 우리가 가야 할 해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관광지화는 여타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것과 크게 다르

다. 즉 지역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관광은 지역경제(농수산물 등)와 자연환경, 지역체성의 유지라는 지역적 가치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 관광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지속가능한 관광의 밑거름이 되고, 주민과 관광산업 그리고 관광객간 갈등의 문제를 줄여나가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제주를 여느 관광지처럼 운명을 다해 퇴화하거나 원하지 않는 리모델링 과정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다한 관광지에는 지역이 가진 자연과 원 풍경, 문화, 지역민이란 지역적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매일 같이 마주하는 일상의 풍경과 제주라는 공동의 정서일 것이다. 관광객들도 제주의 속살과 가치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정서를 공유하려 한다. 일상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 시대이다. 일상의 가치를 지키는 관광이 세상이 원하는 관광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열린마당

풍낭 작은도서관 그늘에서 쉬세요



현택훈 풍낭작은도서관 사서

도서관에 자주 오는 일곱 살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아직 글을 잘 모르는데 책을 펼치고 책을 본다. 손자와 함께 도서관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할머니도 있다. 신문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아주머니도 있다. 소설가가 꿈인 스무 살 재수생은 소설책을 빌려가며 꿈을 꾸다. 풍낭 작은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풍낭은 팽나무의 제주어이다. 제주에는 마을마다 큰 풍낭이 있어서 그 풍낭 그늘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해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며 정이 깊어진다.

풍낭은 팽나무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 머무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

풍낭 작은도서관 그늘 아래로 오세요.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도서관 그늘에서 쉬세요.

이웃 도서관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져 피서를 즐기는 건 어떨까.

북카페도 있어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다. 도서관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고, 북카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연다. 토요일에는 오전에도 열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북카페에서는 현재 독서 모임도 진행 중이다. 독서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기자단, 청소년 책 활동가, 쪽빛 극장, 손뜨개 교실 등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청소년 인문학 특강, 드로잉 교실, 홈페이지 만들기 교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행 중인 사람들을 위해 제주도 여행 안내 책을 비치할 예정이다.

풍낭 작은도서관은 아파프, 주책,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다. 그래서 이용자도 많은 편이다. 얼마만큼 많은 아이는 엄마 옆에 앉아 책을 읽는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팽나무 그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풍낭 작은도서관은 넉넉하고 시원한 팽나무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 머무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

풍낭 작은도서관 그늘 아래로 오세요.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도서관 그늘에서 쉬세요.

이런 날에는 자전거를 버리고 싶어요



부춘성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운영과

자전거라이딩 중에 가장 황당하고 짜증나는 상황은 바로 자전거펑크이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생활화한지도 25년이 지났지만 출퇴근 동안에 펑크가 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즘같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시기엔 더욱 그러하다.

자전거타이어 펑크는 길 위에 있는 각종 날카로운 이물질과 자동차사고 발생 후 도로위에 치워지지 않은 플라스틱 파편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 단순한 펑크인 경우에는 비상용 공구통에 있는 패치, 레버(타이어를 휠에서 분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 펌프를 이용해 수리 가능하지만 큰 못이나 유리로 펑크가 날 경우에는 튜브와 타이어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며칠전에는 비상용 도구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시외곽을 가다가 펑크가 나서 1시간 이상을 자전거를 끌고 집에 온 적이 있다. 이런 날에는 괜히 자전거를 타고 나왔나 싶고 자전거에 대한 나쁜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어 진다. 재수없는 날에는 3번씩이나 펑크난 경험도 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튜브에 액체를 넣어 가시나 미세한 물질을 인하여 펑크나면 즉시 때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있지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펑크를 막을 수는 없다.

3년전 제주도에 환상의 자전거길이 만들어지면서 제주를 찾아오는 자전거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길에 널려 놓은 각종 해산물과 쓰레기로 인해 자전거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다음에도 제주를 찾았는가. 자전거이용자를 위해서라도 자전거길에 차량주차행위, 장애물 쌓아두는 행위 등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주도의 자전거길은 말 그대로 환상의 자전거길이 될 것이다. 그러길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security products. Includes headline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two numbered points about product quality and customer service, product images (CIC, M-ITC, ITC, ITE), contact info (TEL. 753-5347), and a map of the location in Jeju City.